

한국어 교육에서 어순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야니짜 이바노바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
iviana77@yahoo.com

불가리아 학생에게 한국말 공부하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심중 팔구 하는 말은 “한국말이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런데 왜 한국말이 어려우냐고 물어 보면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문법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듣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 처음 한국말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말이 불가리아어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한다. 한국어와 불가리아어가 어순이 틀리고 글자의 모양이 틀려서 그렇다. 이런 이유로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두 언어 사이의 이질감 때문에 단어 역시 외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두 달쯤 지나면 더 이상 글자가 어색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도 더 쉽게 배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남아 있기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불가리아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에 있다. 한국어는 터키어, 몽고어, 일본어, 아이누어와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어 - 목적어 - 동사 (SOV 유형)이다. 불가리아어는 반대로 영어나 이탈리아어, 불어, 중국어와 같이 주어 - 동사 - 목적어 (SVO 유형) 형식을 갖고 있다.

한국말이 속하는 SOV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방장이 요리를 한다.
주어 (S) 목적어 (O) 동사(V)

위 어순은 한국말의 가장 정상적인 배열 순서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상적인 어순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도 있다. 곧 기본 어순 말고도 다음과 같은 어순이 가능하다.

- 2) 요리를 주방장이 한다.
*3) 주방장이 한다 요리를.
*4) 요리를 한다 주방장이.
**5) 한다 요리를 주방장이.

위의 예에서는 1)과 2)가 자연스럽고 3)과 4)는 좀 어색하며 5번 사용하기가 아주 어색하다. 대부분 문장의 어순 바꾸기가 가능하나 한국어에 있어서 어순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같은 문장 속에 동일한 격조사가 쓰인 성분이 한 개 이상 있을 때는 어순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미가 정수를 사랑한다’. 어순을 ‘정수가 수미를 사랑한다’로 바꾸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니면 ‘구름이 비가 된다’의 경우 표현은 가능하나 ‘비가 구름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된다. 문법적으로는 되는 문장이지만 뜻이 어색하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문법 기술의 관점에서 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말은 그 말에 속하는 문장들의 총체이다. 언어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야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를 안다는 것은 원어민의 말을 하고 알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무작정 사전에 실린 모든 낱말들을 알고 그것들을 늘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것은 원어민의 말을 알아 듣고 쓰는 표현이 되지 못하며 결국은 그 언어를 모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 언

어에 속하는 문장이란 말소리, 짜임새 그리고 뜻 면에서 그 언어의 원어민이 정상적인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된다. ‘문장들의 총체’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문장들’을 의미한다. 곧 한 언어는 그 언어에서 허용하는 모든 가능한 문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은 문장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많은 학자들이 정의한 ‘문장’의 뜻매김은 몇 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장’ 자체가 무엇인지 말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대신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국말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다.

서정수(1996:18)에 따르면 한국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고 단어들의 숫자와 규칙이 정해져 있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말큰사전> 등과 같은 한국어 사전에는 낱말 40 만 개 이상이 나오며 그런데 이 모든 낱말들을 다 알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은 많은 단어를 알아도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으면 원어민과 대화하기가 힘들 것이다. 신동욱에 의하면 문장을 만드는 규칙은 되풀이해서 적용될 수 있다면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낱말의 수효와 그것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이루는 규칙의 수효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규칙들을 서로 어우르거나 되풀이해서 적용하고 거기에 낱말들을 바꾸어 넣게 되면 무한한 수효의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한다. 수학에서 극히 한정된 숫자 (0 부터 9 까지)와 연산 규칙 (+, -, :, x)을 반복하여 적용해서 끝없이 많고 긴 숫자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 그래서 규칙의 원리와 낱말의 의미를 알면 끝 없이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순이다. 한국말에 성분의 고정 어순과 자유로운 어순이 있는데 학습자들이 그 규칙을 알면 보다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문장을 만들고 따라서

한국어 자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 규칙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거의 모든 규칙에 불규칙도 있다.

I. ‘체언 + 이/가’로 된 보충어 두 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되다’의 두 보충이 ‘체언 1 + 이/가’는 (위에 언급된 예에 ‘구름이 비가 된다’와 ‘비가 구름이 된다’에서와 같이)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자리를 바꾸면 비문이 되거나, 비록 비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리를 바꾸기 전과는 뜻이 아주 다른 문장이 된다. ‘얼음이 물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II. ‘체언 + 을/를’형식의 보충어가 두 번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어순의 변화가 자유롭지 않다.

다음 각 (가) 문장의 ‘체언 1 + 을/를’과 ‘체언 2 + 을/를’의 순서가 바뀌면 (나) 혹은 (다)에서와 같이 비문이 된다.

1. (가) 선수가 쏜 화살이 과녁의 한가운데를 맞추었다.
*(나) 선수가 쏜 화살이 한가운데를 과녁의 맞추었다.
*(다) 한가운데를 선수가 쏜 화살이 과녁의 맞추었다.
2. (가)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팔을 잡았다.
*(나) 어떤 남자가 팔을 그 여자를 잡았다.
*(다) 팔을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잡았다.
3. (가) 내가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나) 먼지를 내가 온 몸에 뒤집어썼다.
*(다) 먼지를 내가 온 몸에 뒤집어썼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체언’ + 을/를’ 형식의 문장 성분이 한 개 이상씩 있는데 어순을 바꾸기가 자유롭다. 다만 이 때의 두 ‘체언 + 을/를’은 그 기능이 같지 않다.

- (가) 여기서 한 시간을 너를 기다렸다.
- (나) 여기서 너를 한 시간을 기다렸다.
- (다) 너를 여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

위 (가)의 ‘한 시간을’은 수의적인 부가어로서 부사어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를’은 보충어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두 ‘체언 + 을/를’의 기능이 현저하게 다르다.

III. ‘체언 + 에’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도 어순을 바꿀 수가 없다.

- (가) 내 핸드폰이 거실에 왼쪽 서랍에 있다.
- * (나) 내 핸드폰이 외쪽 서랍에 거실에 있다.
- * (다) 외쪽 서랍에 내 핸드폰이 거실에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다음과 같이 두 ‘체언 + 에’의 기능이 서로 다르면 어순 바꾸기가 가능하다. 다음 (가)의 ‘소피아에’는 보충어지만, ‘세 시에’는 부가어로서 부사어이다.

- (가) 우리 반이 세 시에 소피아에 도착했다.
- (나) 우리 반이 소피아에 세 시에 도착했다.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한 격조사가 중동하는 것이 아니지만 두 성분의 어순을 바꿀 수 없다.

IV. ‘있다’ 동사가 ‘존재’ 아니라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 ‘체언 + 에’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

- (가) 곤충에 파리, 모기, 나비 등이 있다.
*(나) 파리, 모기, 나비 등이 곤충에 있다.
(가) 김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계시죠?
*(나) 부모님이 김 선생님께서도 계시죠?
(가) 그 집에 한 아들이 있어요.
*(나) 한 아들이 그 집에 있어요.

위의 첫 (가)는 파리, 모기와 나비 등이 ‘곤충’이라는 집합의 구성원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때의 서술어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의 ‘있다’는 역시 존재’의 의미가 아닌 ‘소유’의 의미로 쓰였다.

다음 예를 비교해 보면 첫 예에 ‘있다’가 ‘소유’의 의미가 있을 때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데 두 번째 경우에 ‘존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순 바꾸는 것도 자유롭다.

- (가) 내게 돈이 있는데 좀 꾸어줄까?
(나) 돈이 내게 있는데 좀 꾸어줄까?
(가) 내게 회사 돈이 있는데 좀 꾸어줄까?
(나) 회사 돈이 내게 있는데 좀 꾸어줄까?

첫 (나)는 비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떤 돈, 예를 들어 회사의 돈 같은 것이 임시로 ‘내게’ 맡겨져 있는데 그것을 꾸어줄까 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나)와 같은 뜻이 문장일 수가 있다. 그러나 첫 경우에는 돈은 내 소유의 것을 의미하니까 첫 (나)와 같은 문장이 될 수가 없다.

‘있다’가 소유를 나타낼 때는 ‘체언 + 이/가’가 ‘체언 + 이/가’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 때도 어순을 바꾸면 비문에 가까운 문장이

된다. ‘있다’가 존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보충어 ‘체언 + 예’를 요구하는 다른 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보충어 ‘체언 + 예’가 주어보다 서술어에 가까운 자리에 놓이는 것이 규칙이다. 그런데 ‘체언 + 예’가 주어의 앞자리에 놓이면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보충어 ‘체언 + 예’가 주어 ‘체언 + 이/가’의 앞자리에 놓이는 경우에서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동일한 용언이 한 가지 이상의 뜻으로 쓰일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V. 소절 속의 두 성분은 자리 옮김이 되지 않는다.

1. (가) 모든 사람들이 김 사장님 아들을 부자로 생각했다.
*(나)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김 사장님 아들을 생각했다.
*(다) 부자로 모든 사람들이 김 사장님 아들을 생각했다.
*(라) 부자로 김 사장님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
2. (가) 농부들이 돌밭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나) 농부들이 꽃밭으로 돌밭을 만들었다.
*(다) 꽃밭으로 농부들이 돌밭을 만들었다.
*(라) 꽃밭으로 돌밭을 농부들이 만들었다.
3. (가) 김 사장이 자기 직원을 사위로 삼았다.
*(나) 김 사장이 사위로 자기 직원을 삼았다.
*(다) 사위로 김 사장이 자기 직원을 삼았다.

밑줄 친 부분이 소절인데 그 각 소절 안의 두 성분은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세 번째의 소절은 구성하고 있는 두 성분은 모두 격조사 ‘을/를’을 취할 수 있는데 그 때도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

소절 안의 두 성분 사이에는 의미상 주어와 술어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 관계가 어순 바꾸기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서술성 명사 문장에도 이러한 제약이 있다. 서술성 명사도 기능동사 ‘하다’ 바로 앞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 (가) 졸업생은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한다.

* (나) 졸업생은 입사를 회사에 해야 한다.

* (다) 입사를 졸업생은 회사에 해야 한다.

* (라) 입사를 졸업생은 회사에 해야 한다.

VI. 관형어와 그 수식을 받는 체언구 사이의 어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의 어순, 의존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서술어와 그 필수적 보충어 사이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

관형어와 그 수식을 받는 체언구 사이의 어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의 어순이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VII. 부사어의 경우도 문장부사어는 그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지만 ‘안, 못, 잘’ 같은 성분부사어는 그것 수식하는 용언의 앞 자리에만 나타날 수 있다.

1. (가) 학생이 글을 잘 씁니다.

* (나) 학생이 잘 글을 씁니다.

2. (가) 아직은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 (나) 아직은 못 점심을 먹었습니다.

성분부사어가 관형어나 체언을 수식할 때, 그리고 다른 부사어를 수식할 때도 그러하다.

3. (가) 김치가 아주 맛있어요.

*(나) 아주 김치가 맛있어요.

4. (가) 오늘 회의에 겨우 다섯 사람이 왔어요.

*(나) 겨우 오늘 회의에 다섯 사람이 왔어요.

의존용언의 필수적 보충어도 서술어 바로 앞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없다.

5. (가) 왜 그렇게 귀찮게 구는지 몰라.

*(나) 왜 귀찮게 그렇게 구는지 몰라.

6. (가) 그 분이 크게 웃으셨어요.

*(나) 크게 그 분이 웃으셨어요.

연습방법

위의 규칙을 학습자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 방법으로 되풀이해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잘 쓰이는 어순 게임은 ‘낱말의 자리 찾기’ 게임이다. 한 줄에 문장들의 모든 단어들이 쓰여져 있고 학습자들이 순서대로 넣고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예) 했다./어제/ 맛있게/이야기도/친구를/저녁을/만나서/먹고
어제 친구를 만나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야기도 했다.

다른 게임은 ‘문장 늘리기’ 게임이다. 선생님이 칠판에 하나의 짧은 문장을 쓰고 학습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단어나 몇 개의 단어를 추가해야 된다.

예) 수미가 예쁩니다.

수미가 아주 예쁩니다.

우리 수미가 아주 예쁩니다.

우리 수미하고 마야가 아주 예쁩니다.

우리 수미하고 마야가 아주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 수미하고 마야가 아주 예쁘지 않아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수미하고 마야가 아주 예쁘지 않아서 친구가 많지 않고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다른 게임은 ‘단어의 자리 찾기’ 게임이다.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문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옆에 한 단어를 써 놓고 학습자들이 문장에 그 단어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예) 수미하고 마야가 그 식당에 갑니다. (가끔)

저는 한국음식을 먹어 봤습니다. (안)

택시를 타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문장 짓기’ 게임은 어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어순을 가르칠 때 이용할 수가 있다. 그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교사가 칠판에 하나의 단어를 쓰고 학습자들이 하나하나씩 앞의 단어와 연결이 있는 단어를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 선생이 ‘바나나’라고 쓰면 첫 학습자가 ‘원숭이’를 생각해서 칠판에 쓰고 그 다음 학습자가 ‘원숭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물원’이라는 단어를 쓴다. 다음 학습자가 ‘동물원’하고 관계가 있는 ‘기린’을 쓰고 다음 학습자는 ‘아프리카’

를 칠판에 쓴다. 다음에 학습자들이 ‘바나나 – 원숭이 – 동물원 – 기린 – 아프리카’ 로 문장을 지어야 된다.

결론

남기심(2001: 45-46)에 따르면 한국어의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와 ‘무엇이 무엇이다’ 중의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의 ‘무엇이’는 주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는 서술어이다. 이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문장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각 문장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필수적인 성분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 문장 속의 모든 성분들의 자리를 찾고 정확하게 놓으면 올바른 문장이 된다.

학습자들에게 쉽게 한국어 어순의 규칙을 제시하고 많은 연습으로 어순규칙을 되풀이해서 익히게 되면 보다 더 쉽게 한국말로 문장을 짓고 보다 더 정확하게 한국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별도로 어순을 가르치면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남기심 (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Lee, Iksop, Ramsey. S.R. *The Korean Langu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ttp://mybox.happycampus.com>